

# K리그1 일정 축소 합의... 리그 개막 '깜깜'

### 프로축구연맹 대표자 회의서 경기 축소 공감대 형성 리그 운영방안 결론 못내... '느슨한 일정' 의견 모아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프로축구 K리그1(부 리그) 구단들이 올 시즌 일정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K리그1 12개 구단 사장·단장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0시즌이 개막하면 풀 리그 방식으로 팀당 33경기를 치르고,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5경기씩을 더 치르는 현행 38라운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즌이 치러질 전망이다.

스플릿 시리즈 없이 33라운드만

치르는 방식은 물론 32라운드(정규 리그 22라운드+스플릿 10라운드), 27라운드(정규리그 22라운드+스플릿 5라운드) 등 여러 방식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으나 대표자들은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개막 시점이 미뤄지고 있어 경기 수가 축소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리그 개막 시점·어웨이 경기 수에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각 구단이 유휴리를 따지지 않고 불리한 부분을 감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개막 뒤에도 선수 감염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일'을 뒤 비교적 느슨하게 일정을 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리그 방식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개막 시점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면 4월 초 리그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막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정부의 대응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막 시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열린 K리그2(부 리그) 대표

자 회의도 일정 축소에 관해 논의하는 데 그쳤다. 개막 시점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K리그2는 되도록이면 36라운드 경기를 모두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개막이 늦어져 소화하기 어려우면 경기 수 축소를 감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A매치 기간에도 리그를 진행해왔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도 자유로운 K리그2는 K리그1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 6월에 개막한다 해도 주중 경기를 대폭 늘리면 36라운드를 물리적으로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다만 K리그2 대표자들 역시 예비 일을 충분히 두면서 일정을 짜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2년 전 세기의 대결에서 이긴 미켈슨(오른쪽)이 우즈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즈-미켈슨 세기의 대결 올해 열리나

### 미켈슨 "재대결 추진 중"

코로나19의 대유행 탓에 세계 프로골프 투어가 모조리 중단된 가운데 골프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의 1대1 맞대결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소식이다.

둘은 지난 2018년 1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 코스에서 1대1 매치플레이 대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켈슨은 연장 네 번째 홀까지 간 접전 끝에 상금 900만달러를 독차지했다.

이 '세기의 대결'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불발됐고, 올해도 성사가 불투명했다.

그런데 미켈슨이 트위터에서 재대

결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켈슨은 트위터를 통해 우즈와 맞대결 이벤트를 치를 의향을 묻는 팬의 질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짧막하게 답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이 "변죽을 울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 진짜다"라는 답을 바로 올렸다.

둘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은 코로나19 탓에 웬만한 스포츠 경기 중계가 멈춘 방송사에는 호재다.

100명이 넘는 선수에 수많은 갤러리가 모이는 투어 대회가 아니라 단 2명의 선수가 갤러리 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결 때도 관객은 입장시키지 않았고, 유료 채널을 통해 중계 방송을 했다.

연합뉴스

## 임성재 PGA 가상 매치플레이 대회 4위

### 전문가 10명 투표 승부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가상으로 진행한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쟁쟁한 세계적인 톱 플레이어들을 누르고 4위를 차지했다.

PGA 투어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중단됐다.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는 등 빨라야 5월 21일 개막하는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부터 시즌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자 PGA 투어는 최근 3월 25일 29일까지 열린 예정이었던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대회를 가상으로 진행해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로 했다.

물론 실제 골프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부는 전문가 10명의 투표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임성재는 조별 리그에서 저스틴 로즈, 맷 윌리스(이상 잉글랜드), 버바 왓슨(미국)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임성재는 로즈, 왓슨 등 메이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전문가 투표 8-2 완승을 거뒀고, 윌리스는 아예 10-0으로 완파했다.

2019-2020시즌 PGA 투어 전문가들 바라보는PGA 투어 전문가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성재의 4위는 기분 좋은 결과다.

연합뉴스

## LA 다저스 시즌 취소시 가장 타격받는 ML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 2020 시즌이 통째로 취소되면 어느 팀이 가장 속상할까?

미국 매체 NBC스포츠는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전 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꼽았다.

이 매체는 30일(한국시간)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시즌이 취소되면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것을 잃는 구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저스는 2020시즌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했다. 2020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윈나우(Win now) 정책을 펼치면서 젊은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즉시 전력 선수를 끌어모았다.

지난달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좌완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와 강타자 무키 베츠를 영입하고 외야수 알렉스 버두고와 핵심 불펜 마에다 겐타를 보냈다. 이 중 베츠는 2020시즌 직후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최근 시즌이 취소되더라도 선수들의 등록일수(서비스 타임)를 보장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저스는 이 밖에도 저스틴 터너, 잭 피터슨, 페드로 바에스 등 주요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안타 쳤는데 2루 아웃이라니... 3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자재 천행전인 홈 원정 경기에서 2회 말 안타를 치고 나간 홈팀 마차도(왼쪽)가 2루에서 원정팀 오윤석에게 태그 아웃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농구 FA시장 영입경쟁 '4월 후끈'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박혜진(30·178cm), 김정은(33·180cm)과 용인 삼성생명 박하나(30·176cm) 등 자유계약선수(FA)들에 대한 영입 경쟁이 4월 1일 시작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올해 보상 FA 대상자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FA 대상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박혜진이

단연 '최대어'로 꼽힌다. 박혜진은 2019-2020시즌 우리은행에서 27경기에서 나와 평균 14.7점에 5.4어시스트, 5.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강력한 최우수선수(MVP)로 지목된다.

김정은과 박하나, 안혜지(BNK), 심성영(KB) 등도 영입 대상 리스트에 오를 만한 선수로 꼽힌다.

보상 FA는 1차와 2차 대상자로

나뉜다.

1차 대상자는 최초 선수 등록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로 이들은 4월 1일~15일까지 원소속 구단과만 협상할 수 있다.

원소속 구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월 16일~25일까지 다른 구단과 만날 수 있다.

반면 1차 FA 자격을 한 차례 행사한 선수들은 2차 FA가 되는데 이들은 4월 1일~25일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

###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오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정빌딩

###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싹(부식)이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흥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성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논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